

전남도, 코로나19 차단... 선제적 검사 확대·사전점검 강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기존 조치보다 강화된 방역체계 적용

전라남도는 4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수칙 사전점검 강화, 선제 검사 확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기존 조치보다 강화된 방역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닷새째 500명대 확진자가, 인근 지역인 전북에서 2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3차 유행과 같이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4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남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3월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최근 4일간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는 4명이다. 모두 타지역 방문 또는 외부인 접촉으로 발생했으며, 확진자의 접촉자는 하루 평균 26명 수준으로 타지역 유입에 의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남도는 전국적인 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선 즉시 집합금지 등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에 들어갔다.

순수해야할 7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방역수칙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이다.

또 숨어있는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종사자 24만 1천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검사도 마쳤다.

최근 부산 등 유행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최근 단체와 최근 긴급회의를 개최,

도·시군 합동으로 2일부터 이남까지 도내 15개 시군 유행단란주점 84개소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 특히 유흥시설 종사자 및 방문자 증상 발생시 해당 보건소에서 신속히 익명검사를 받도록 했다.

7일부터 전남도교육청, 도 체육회와도 협력해 도내 운동경기부 선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제검사에도 나선다.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컬 선거지역인 순천·고흥은 특별 방역 지역

으로 지정, 투표 기간 동안 방역이 강화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목포, 순천, 여수 3개 지역에 지역예방접종센터를 개소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총 22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1분기 접종률은 76.1%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6만 1천명 중 4만 6천명을 접종했다. 8일부터는 특수교육 종사자 및 장애인시설 등 1만 1천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

75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주말에도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 2분기 내 접종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 및 교사는 2분기 일정 앞당겨 안전하고 속도감 있게 백신접종을 마칠 방침이다. 3분기부터는 16세 이상 64세 미만 일반도민 102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확대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타지역 방문 또는 외부인 접촉에 의한 지역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도 집단면역 형성에까지 강화된 7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봄철 나들이 등 사회적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윤규진기자

“가족과 함께 전남서 꽃길여행 즐기세요”

목포 유달산 꽃정원·광양 서천 꽃길·진도 관매도 유채 추천

전라남도는 봄꽃 향연이 펼쳐지는 4월을 맞아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주제로 목포 유달산 꽃정원, 광양 서천 꽃길, 진도 관매도 유채단지를 ‘안전한 거리두기’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유달산 꽃정원은 지상의 꽃길, 바다 위 꽃길, 천상의 꽃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꽃이 정원의 규모를 넘어 파도를 치듯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형상이다.

목포에는 꽃구경만큼이나 환상의 경치를 자랑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레트로 여행지인 목포 근대 역사

관, 연희네 슈퍼, 시화골목, 스카이워크, 고하도 해상테크길 등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광양시 서천 꽃길은 전남의 대표 봄꽃 여행지다. 촘촘히 줄지어 선 벚나무마다 벚꽃이 만발하다 못해 하늘을 덮어버린 벚꽃터널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순백의 벚꽃 세상이 펼쳐져 사람도 차량도 느릿느릿 움직이며 연인과 가족이 함께 사진 찍느라 분주하다. 광양시민의 산책코스로도 사랑받고 있다.

진도 조도의 관매도는 4월이면 노

란 유채꽃 천국으로 탈바꿈한다. 4D 영화처럼 나를 향해 힘차게 몰려오는 착각이 들 정도다. 관매도는 관매 해변, 관매습지, 장산편마을을 따라 에메랄드 해변의 모래사장을 밟다 보면 서해와 남해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햇빛을 피해 소나무 숲길로 가면 11만 5천여㎡의 해안 송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주변에 윤림산방, 세방나초, 신비의 바닷길, 솔비치 진도, 송가인 집 등 명소가 즐비하다.

/오복기자



진도 조도의 관매도는 4월이면 노란 유채꽃 천국으로 탈바꿈한다. 4D 영화처럼 나를 향해 힘차게 몰려오는 착각이 들 정도다. 관매도는 관매해변, 관매습지, 장산편마을을 따라 에메랄드 해변의 모래사장을 밟다 보면 서해와 남해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햇빛을 피해 소나무 숲길로 가면 11만 5천여㎡의 해안 송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전문체육진흥 사업 추진

청년체육인재 육성, 선수 훈련 지원 등 7개

광주광역시시는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지역 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한다.

전문체육진흥 사업은 전문우수선수·청년체육인재 육성, 전국체전 대

표선수 훈련·종목단체 지원, 체육지도자·수영팀 운영, 학교체육진흥 등 7개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광주시는 올해 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시체육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 방지, 약세종목 전력강화를 위한 지원·영입 등을 위해 25개 종목 220여 명의 우수선수를 선정해 육성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 선수, 발전 가능한 지역 유망 청년선수들에게 우수한 체육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4개 종목 35명의 청년체육인재를 선정해 육성비를 지원한다.

또 전문체육지도자 30여 명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에 각각 배치해 지도하며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종목단체 운영 지원과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 훈련 및 참가 지원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수들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한다.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진흥 사업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4월 중

시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0여개 학교 팀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팀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재능있는 꿈나무 선수를 조기 발굴·육성하는 등 학교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선수들의 체육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 활성화

를 위해 맞춤형 온라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제102회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체력, 컨디션 등 다양한 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사업도 실시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앞으로도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시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역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기호기자

